

2010. 12. 9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12월 1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대외협력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KDI 월간 『나라경제』 창간 20주년 맞아

- 14개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지 -

- KDI 주관 하에 14개 경제부처 정책담당자가 발간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지 월간 『나라경제』가 창간 20주년을 맞이함.
 - ‘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’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90년 12월 1일 창간된 『나라경제』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2010년 12월 특집호(통권 241호)를 발간
 -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『나라경제』는 KDI와 14개 경제부처 합동편집위원회가 편집에 참여하는 정책매거진으로 지난 20년간 정부 정책, 주요 사회 이슈 등에 관한 정부, 학계 및 언론의 폭넓은 의견을 제공
 - ※ 편집위원회 참여 부처 : 기획재정부, 교육과학기술부, 외교통상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수산식품부, 지식경제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국토해양부, 방송통신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금융위원회(총 14개 부처)
 - KDI 경제정보센터는 『나라경제』 (<http://nara.kdi.re.kr>) 창간 20주년을 맞아 12월 10일(금) 저녁 6시 KDI 회의실에서 정부경제부처 편집위원, 전임편집장 등 유관 인사 및 KDI 경제정보센터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개최

□ 한국경제의 급성장기라 할 지난 20년 동안 시행된 경제정책의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낸 『나라경제』는 한국 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일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

- 100페이지 내외에 달하는 지면을 통해 경제정책 해설 및 분석, 비판을 고루 제공함으로써 경제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는데 기여,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현재 월 평균 8천 부 이상 배포
- 특히 대부분의 기사를 정책입안자들이 직접 작성함으로써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, 내용 및 의미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는 평가

□ 현오석 KDI 원장은 『나라경제』 12월 특집호의 기념사를 통해 “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있어 『나라경제』의 노력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”고 평가하면서, “창간 20주년을 맞아 보다 수준 높은 경제정보와 심도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충실한 가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힘.

- 특히 현 원장은 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가 간 회복속도 차이, 미국의 양적완화정책과 같은 각국의 자국중심적 정책대응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”며, “향후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『나라경제』가 기여할 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”이라고 강조함.

□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집호 축사에서 “『나라경제』가 경제의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,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”고 평가

- 윤 장관은 “정부의 경제정책을 알려면 『나라경제』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위 있고 신뢰감 있게 역할을 수행해 왔다”고 밝힘.

□ 윤중현 장관은 “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경제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현 시점에 신발 끈을 다시 조여매고 경제 도약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”며 “『나라경제』가 다시 출발선에 선 우리 경제의 파수꾼이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줄 것”을 당부함.

◆ 첨부 #1. 『나라경제』 창간 20주년 특집호 주요 기사

※ 문의: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홍보팀 (02)958-4674, 4652

[첨부#1]

『나라경제』 창간 20주년 특집호 주요 기사

- 창간 20주년 축하: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
 - 희망경제의 파수꾼,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

- 창간 20주년 기념사: 현오석 『나라경제』 발행인, KDI 원장
 - 국민과 정부 간 가교역할에 더 충실하겠습니다

- 창간 20주년 특별기획: 한국경제 20년을 연다
 - 역대 경제수장에게 듣다
 - 한승수 전 국무총리/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
“녹색성장과 에너지 수출 두 가지만 가지고도 향후 20년은 문제없을 것이다. 덧붙이자면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질 세계경제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. 우리 나름의 패러다임과 창조적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.”

 -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/전북대 석좌교수
“앞서가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기보다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, 뒤처지는 사람에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. 믿음과 희망을 나누는 사회로 가야 하며, 무엇보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.”

 -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/민주당 의원
“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난 정부부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.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른바 ‘출구전략’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. 시기를 놓쳐선 곤란하다.”

 - 달라진 한국경제의 위상
 -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
“대학교육의 개혁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도입 등이 시급하다.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근시안적이고 정쟁만 일삼는 국내 정치를 보다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”

- 부문별 전망과 과제

- 거시경제: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
- 금 용: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
- 대외개방: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
- 산 업: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- 사회복지: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

- 미래대비

•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

“인터넷 발달에 따라 평등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자기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세상변화를 주도해 간다. 이른바 집단지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.”

• 김영길 한동대 총장

“교육도 학생들이 가시적 현실과 가상현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선을 넓혀야 한다. 21세기 번영의 열쇠는 열린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.”

• 호사카 유지 세종대 정치학 교수

“일본은 선진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이기주의적 요소가 강한 나라다. 중국은 개도국이며 15억이라는 인구 때문에 세계보다 먼저 자국을 생각해야만 한다. 동북아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한·중·일 관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다.”

- Special Interview

• 안철수 KAIST 석좌교수

“대·중소기업 관계의 핵심은 기업 총수가 아니다.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파트너와 일하는 실무팀장이 키를 쥐고 있다. 이들에 대한 인사고과 기준만 고치면 기업 생태계는 바뀐다.”

□ 이달의 이슈 : 한-EU FTA 이렇게 준비한다

□ 정책 그 후

- 고용노동부 「취업성공패키지 사업」

□ 세계는 지금

- 교육은 투자인가, 비용인가? - 구연희 주OECD대표부 참사관
- DDA NAMA 협상 어디까지 왔니(1) - 김남혁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

□ 경제정책해설

- 생물자원 체계적 관리로 미래가치 키운다 -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
- 공기업 방만경영 강력하게 차단 - 이준균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
- 신재생에너지산업에 2015년까지 40조원 투자 - 유재호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
- '수륙양용버스·바이모달트랩 타고 출근한다' - 김우철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장
- 2020년까지 고용률 70% 달성한다 - 김종윤 고용노동부 고용전략과장
-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산업생태계 경쟁력 높인다 - 이상현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사무관

□ 연중기획 : 작지만 강한 기업 (최종회)

- 한국형 '스몰 자이언츠'가 답이다 - 이장우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, 경북대 교수
- 묘목이 뿌라내릴 수 있게 제도로 뒷받침을 -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
-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 만든다 - 이원주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